

김상현 교수를 추모하며

원효·효당 스님 만나 화엄경지 갈무리 하시길...

장마 속에 전해진 임의 운명소식은 비를 핑계 삼아 그 속에 뛰어들어 하염없이 울고만 싶은 심경이었다. 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은 내겐 차라리 배신이였다. 얼마나 살았다고? 한 게 뭐였다고? 앞으로가 참 인생인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이다지도 허무하게 떠나셨단 말인가?



삼성출판박물관 삼성유지업아카데미(SMA)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 강의 당시 김상현 교수(둘째 줄 오른쪽 4번째)와 필자(둘째 줄 오른쪽 5번째)

효당(曉堂, 1904~1979) 스님께 같이 가르침을 받았고, 경감한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늦잠가들 때 때에 내 같이 설레었으며,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취직 했을 때, 또 얼마나 우리 기뻐했던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서 인생의 조연자로 또 말벗으로 평생을 함께한 두터운 교분이었는데, 정년 후엔 화랑도의 풍류를 늘그막에나마 맘껏 즐겨보자고 인약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학교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게 한 마디 암시도 없이 이렇게 무심히 떠날 수 있던 말인가? 원망스럽고 분해서 먹먹한 맘으로 먹구름 낀 하늘만 멍하니 바라다볼 뿐이다.

1960년대 후반 필자가 부산에서 효당 스님을 처음 만날 무렵 합천이 고향인 청년 김상현과도 첫 대면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것은 필자 인생에 있어 큰 인연이었다. 당시 필자가 채 서른도 안 된 나이였으니 김상현 역시 열기 등등한 청년이었다. 사천 다출사를 오가며 필자가 스님을 통해 풍류를 배웠다면 청년 김상현은 원효와 화엄사상을 보았을 것이다.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는 필자와 김교수는 고 김총렬 고려대 교수 등과의

기투합해 차선회를 만들기도 했으며, 필자가 설립한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불교철학을 지금까지도 담론해왔었다. 90년대 당산동 시대 삼성문화강좌가 김총렬 교수의 주역과 노·장자가 중심이었다면, 박물관이 지금의 구기동으로 이전해 터를 잡은 2000년대 삼성유지업아카데미(SMA)는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와 원효, 화엄사상이 핵심이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인 고매한 인격자로 화엄사상의 전범사였으며 단구의 원효였다.

김 교수님 이제 세속에서의 이고 다녔던 모진 번뇌 낮게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그토록 정진했던 이상의 가치 불국토에서 효당 스님을 만나 사바세계의 안부 고이 전하시고 원효대사와 조우하여 이 내 못다 한 화엄사상의 경지를 갈무리해 보시길 삼가 빌어본다.

상현 아우님! 이승에서의 깊은 인연의 끈 피차 잠시 놓고 부디 영면에 드시게나.

김종규 <문화유산신학 이사장>

社說

새 군종교구장에 거는 기대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7월 25일 열린 군종교구 교구장 이취임식에서 정우 스님은 "군포교의 주체는 현장에서 뛰는 현역 군승들"이라며 "군승 법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군포교 최일선에서 뛰는 현역 법사를 존중하고 지원과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실 군포교의 주체는 군승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군승과 현장의 포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포교의 성과를 좌우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군승 지원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군종교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포교조직의 활성화도 과제다. 현재 군종교구는 현장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군승교육과 함께 2012년 6월부터 군포교지원단 체제의회를 결성해 관리하고 있다. 군승 수

급이 어렵고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 스님이 밝힌 후원체계 확립과 함께 '문화포교'를 군 포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현재 군종교구의 연 수계인원은 10만 여명에 달한다. 일선 군법당 개보수 문제가 있지만 양적인 성장은 궤도에 오른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육군 한 중진급 군법사는 "10만 수계 중 불자가 표기하는 이는 8만 명에 불과하다. 불교 가르침보다 잣밥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신심을 키우는 포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불교는 미래 한국불교를 책임지는 황금어장이다. 새로 출범한 군종교구가 그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군불교 발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정전 60년, 끝나지 않은 '6·25'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 됐다. 북한이 1950년 6월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침하자 유엔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했다. 수많은 한국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이름으로 침략군인 북한군,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정전 2개월 후 탄생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크게 변화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냉전 상태가 끝났다. 공산주의가 퇴조한 상태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중국은 6·25 전쟁 때 북한 편에서 서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지금은 한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외교적으로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는 평화를 끝까지 잡았다. 바람 오바

마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오늘은 종전뿐만 아니라 길고 풍요로운 평화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념비도 그들의 노고에 비견할 수 없고 그들의 희생이 빛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들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전이라는 표현으로 6.25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과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평화협정이 미군철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고 다방면에서 남북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한 역시 북한이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어떠한 경색 국면이 와도 불교계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열어야 한다. 그레아 대화의 실마리가 납는다. 정전 60주년이 통일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발언대

잇달은 인재, 이제는 그만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한 주동안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인재라는 데 공통점을 가진다. 잇달만 하면 벌어지는 인재에 대한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부처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남전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

지난 한달 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한 주동안 이어졌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다.

태안의 해병대 캠프와 노량진 배수지 인명사고의 원인을 돌아보면 모두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진 것이다.

이런 사태는 모두 인명을 경시하는 현대사회의 풍조에서 나온다. 인명을 우선으로 하는 노동과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 모든 일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몰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교관들의 부주의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힌다.

조심이 재앙을 막는 부적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참여했던 5명 어린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범사의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입시경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학생들이 극기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병영캠프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들이 부모와 함께 조용한 산사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템플스테이를 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극한 체험이 인간을 성숙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몰린 요즘 학생들에게는 심신을 맑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발생은 어리석음의 소치다. 조심하는 것이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기초며 이것이 곧 계율이다.

조심이 곧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재앙을 막는 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전점검 매뉴얼 만들어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해병대 캠프를 인솔한 공주사대부교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인솔해 캠프를 진행하던 중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무책임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다. 국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캠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가 행사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그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행사 주최측이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든지 하는 철저한 계약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여름 캠프를 할 때 특별히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기본안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 사전점검을 했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력이 부족해 사전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요법 : 도테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